

KIA 양현종, 첫 실전에서 145km 직구



양현종(KIA)이 일본 오키나와 캠프 첫 등판에서 완벽투를 펼쳤다. 양현종은 23일 기노와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와의 연습 경기에 선발 등판했다. 201년 3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 직구 최고 145km까지 나왔고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졌다. 양현종은 1회 이시카와의 좌중

日오키나와캠프 첫 등판서 완벽투 뽐내
“투구 밸런스 생각해 여러 변화구 시험”

간 안타, 로페즈의 좌전 안타로 2사 1.3루 실점 위기에 놓였으나 미야자키를 2루 땅볼로 유도하며 1회 투구를 마쳤다.

2회 선두 타자 소토를 중견수 플라이로 유도한 양현종은 호소카와에게 볼넷을 내줬다. 하지만 포수 김민석이 호소카와의 2루 도루를 저지하며 아웃 카운트를 추가했다.

그리고 양현종은 2사 주지없는 가운데 토바시라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쿠라모토를 1루 땅볼로 유도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양현종은 3회 이민우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양현종은 “투구 밸런스를 많이 생각하고 여러가지 변화구를 시험하고자 했다. 안타와 볼넷을 내줬지만 첫 등판치고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구 스피드는 신경쓰지 않았다. 투구를 마친 뒤 (김)민석에게 공끝에 대해 물어봤는데 한두개씩 날리는 공이 있다고 했다. 참여야 할 과제다. 전체적으로 공끝이 나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양현종과의 일문일답.

▶ 캠프 첫 등판 소감은.

- 투구 밸런스를 많이 생각하고 여러가지 변화구를 시험하고자 했다. 안타와 볼넷을 내줬지만 첫

등판치고 나쁘지 않았다.

▶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 투구 밸런스를 어느 만큼 잡느냐를 가장 신경썼다. 그리고 투구 밸런스가 잡히면 여러가지 변화구를 시험삼아 던질 생각이었다.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 변화구가 미묘한 느낌이였다. 앞으로 구위가 좀 더 올라오면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직구 최고 145km까지 나왔나.

- 직구 스피드는 신경쓰지 않았다. 투구를 마친 뒤 (김)민석에게 공끝에 대해 물어봤는데 한두개씩 날리는 공이 있다고 했다. 참여야 할 과제다. 전체적으로 공끝이 나쁘지 않았다.

▶ 올 시즌 각오를 말하십시오.

- 캠프 기간 중 실전 경기가 많으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그리고 변화구 컨트롤과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슬라이더 스태프로 신경써야 한다. 지금처럼 차근차근 잘 준비한다면 시즌 때 좋은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은 평창...내달 9일 패럴림픽이 ‘감동’ 이어간다

50여국 1700여명 선수단 참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감동을 이어갈 패럴림픽이 개막한다.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총 6개 종목에서 80개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5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사상 최초로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 출전권을 획득해 39명의 선수가 대회 종합 10위를 노린다.

우리나라는 2002 솔트레이크 동계패럴림픽 알파인스키에서 한상민이 은메달을 따내며 첫 실상종목 메달을 기록했고, 2010 밴쿠버 동계패럴림픽에서도 휠체어컬링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단체종목 첫 메달의 기쁨을 안아온 바 있다. 금메달은 아직 없다.

이번 대회 역시 도핑 파문을 겪었던 러시아는 ‘패럴림픽중립선수단(NPA)’이라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북한 역시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한다. 북한은 패럴림픽에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등 대표단 150명을 파견하기로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북한 장애인 노르딕 스키 선수 마유철(27)과 김정현(18) 두 명을 와일드카드(특별 초청권)로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초청했다.

평양 출신인 마유철은 만 5세 때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에서 탁구 선수로 출전한 경험이 있고 평창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노르딕 스키 선수로 전향했다. 김정현 역시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할 예정이다.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은 “북한이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희망이 박차 오른다. 북한의 참여는 그 자체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패럴림픽은 기존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실상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와 정선 등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서 열리고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에서는 컬링과 아이스하키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첫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노르딕 스키에 출전하는 신의현(창성건설)이다. 신의현은 지난 4일 핀란드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노르딕 스키 월드컵 바이애슬론 7.5km 남자 좌식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즌 첫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다.

지난 2008년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한 그는 2009년 휠체어 농구를 시작한 뒤 2015년 노르딕 스키에 입문했고 약 1년여 만에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빙판 위의 메시 정승환(강원도청)이 이끄는 아이스하키팀도 메달이 기대된다. IPC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썰매하키 선수인 정승환은 이미 세계 장애인 아이스하키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밖에 알파인 스키 장애인(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10년 밴쿠버 패럴림픽에서 첫 출전한 은메달을 수확한 컬링 대표팀도 강력한 메달 후보다.

평창패럴림픽 배대현 선수단장은 국가대표 발대식에서 “안방 대회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장애인 스포츠의 기반을 닦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고진영, 혼다 LPGA 타일랜드 7위



우승은 제시카 코다

고진영(23·하이트진로)이 ‘혼다 LPGA 타일랜드’(총상금 160만달러)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 25일 태국 춘부리 시암 컨트리클럽(파72·657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6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브리타니 린시컴(미국), 아리아 주타누간(태국) 등과 함께 7위로 대회를 마쳤다.

고진영은 지난주 ISPS 혼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데뷔전 우승은 1951년 베벌리 헨스(이스턴 오픈) 이후 67년 만이었다. 이 감각을 유지하며 고진영은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도 선전했다. 마지막 라

운드에 특히 집중하며 톱10에 들었다. 신인왕 후보다웠다.

이날 전반 9홀에서만 3타를 줄이면서 상승세를 탔다. 14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15번홀(파4)에서는 2번째 샷이 홈집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이글까지 기록했다. 이어 16번홀(파3)과 18번홀(파6)에서도 버디를 잡았다.

미국의 제시카 코다(26)가 우승했다. 최종합계 25언더파 263타로 미국의 렉시 톰슨(20언더파 203타) 등 공동 2위그룹을 4타차로 제쳤다. 2011년 신인왕인 코다는 2015년 10월 사인다비 LPGA 말레이시아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LPGA투어 통산 5승이다.

다렌딩 챔피언 양희영(29·PNS창호)은 이븐파 72타에 그치며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14위에 랭크됐다. 지난 시즌 올해의선수상을 비롯, 3관왕에 오른 박성현(25·KEB하나은행)은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점인지(24), 김세영(25·미래에셋) 등과 함께 공동 22위를 마크했다.

뉴스스



여자컬링 대표팀, 내달 세계선수권 출격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노스베이서 13개팀 격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온 국민을 웃고 울게 만든 대한민국 여자컬링 대표팀이 세계무대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던진다.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서 열리는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스킵 김은정(28)과 김영미(27), 김선영(25), 김경애(24), 김초희(22·이상 경북도체육회)로 구성된 팀 깃은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컬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세계랭킹 톱6를 모조리 제압하는 등 예선전적 8승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4강에 진출했다. 속적 일본과 준결승에서 맞붙어 연장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비록 결승에서 스웨덴에 패하며 2위를 했지만 금메달 이상의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대표팀은 올림픽 기간 받은 관심과 성원을 세계 선수권까지 이어가려 한다.

세계선수권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중국, 스코틀랜드(영국), 미국, 스위스, 러시아(OAR) 등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들뿐 아니라 체코, 독일,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등 총 13개 팀이 출전한다.

한국 대표로 평창올림픽 기간 온 국민을 컬링의 매력에 흠뻑 빠뜨린 은메달의 주역인 팀킵이 나선다. 안방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어갔던 대표팀이 은메달 팀으로서 달라진 위상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팀킵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7 세계선수권에서 5승 6패로 역대 최고인 6위를 했지만 4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당시 레이철 호턴 스킵이 이끄는 캐나다가 13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랭킹 1위 캐나다는 평창에서 6위에 그치며 자존심을 구겼다. 평창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스웨덴은 안나 하셀보리 스킵의 팀이 그대로 나온다. 대표팀으로서는 스웨덴에 당했던 결승전 패배를 설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홍민·청용 짧은 만남...토틀넘 판정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과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이 짧은 맞대결을 가졌다. 토틀넘 핫스파와 크리스탈 팰리스는 25일 밤(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7~2018 EPL 28라운드에서 맞붙었다.

두 선수는 나란히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손흥민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특집 기세가 한풀 꺾인 손흥민은 후반 35분 무사 뎀벨레를 대신해 그라운드 투입됐다. 이청용은 후반 42분 부름을 받았

다. 겨울이적시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잔류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 모습이었다.

두 선수 모두 부지런히 뛰었지만 뭔가 보여주기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

결과는 손흥민이 속한 토틀넘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뚫지 못해 애를 먹던 토틀넘은 후반 43분 해리 케인의 찬금 같은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토틀넘은 승점 55(16승7무5패)로 4위가 됐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승점 27(6승9무13패)로 17위에 머물렀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